

# 영산강 보 개방... 올 여름 녹조 99% 줄었다

전국 녹조 발생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경보발령 100일 이상 ↓  
폭염 일수 감소·낮은 수온·오염물질 유입 감소도 주요 원인

영산강의 올 여름 녹조(유해 남조류)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일수와 강수량의 감소, 보 개방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전국의 녹조 발생상황을 분석한 결과(9월 6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7~8월)과 비교해 경보 발령지점과 발령일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 6월 20일 낙동강 창녕·함안에서 처음으로 녹조 관심 경보가 발령된 후, 9월 첫번째 주까지 총 6곳에서 경보가 발령 중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경보

발령 지점이 10곳이었다. 9월 첫째 주 기준 조류 경보가 발령된 6곳은 낙동강의 ▲창녕·함안 ▲강정·고령 ▲칠곡, 경기 수원의 ▲광교지, 경북 포항 ▲영천호, 충북 청주 ▲대정호이다. 올해 경보 발령 일수는 총 216일로, 지난해 335일보다 100일 이상 적고,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4대강 보 상류 500m 구간의 경우 낙동강은 남조류 세포 수가 지난해 보다 평균 약 34% 감소했다. 나머지 수계에서도 남조류가 적게 출현해 녹조 현상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올해 녹조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감소, 여름철 녹조 대책, 보 개방 등 복합적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지난해와 달리 덜 더웠고 일사량도 감소해 비교적 낮은 수온이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높은 수온에서 잘 자라는 남조류의 개체수가 9월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가을잠마로 인한 많은 양의 비 등으로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우량도 지난해 대비 적어서 강우 시 하천에 유입될 수 있는 질소·인 등의 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농가에 방치된 가축 분뇨를 수거한 뒤 그 양에 따라 퇴비 쿠폰을 지급하는 퇴

비나눔센터 등도 녹조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보 개방 폭이 큰 금강, 영산강에서 녹조 발생이 작년보다 99% 이상 감소한 점을 들어 보 개방에 따른 물흐름 속도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예년 사례를 비취볼 때 10도 내외의 낮은 수온에서도 번식하는 일부 남조류(아파니조메네·Aphanizomenon)가 10월부터 우세를 점하면서 저온성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조는 예년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올해 녹조 발생 상황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녹조 확산 방지와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30년 사업 무산될 듯 원주환경청, 환경평가 부동의

강원도 양양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30년 넘게 추진돼 온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산도 설치사업(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 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양양군이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올해 5월 16일 제출한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광주시·광주NGO시민재단·광주전남연구원·(가)광주광역시민관협치회의가 주관하고, 광주시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주최해 광주시 북구 YWCA 1층 대강당에서 최근 열린 '시민이 만드는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2차 워크숍'에서 시민 참여단이 광주 지역 에너지전환을 위한 미래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광주전남 녹색연합 제공>

## '제4회 대촌천 반딧불이 생태 체험' 225가족 참여 신청

19~21일 광주시 남구 대촌서 열려... 별자리 관측 체험도  
광주시 남구 대촌천 일원에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제4회 대촌천 반딧불이 생태 체험 행사'가 열린다. 남구는 "제4회 반딧불이 생태 체험 탐방

프로그램 참가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에 거주하는 850여명(225가족) 시민들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남구는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일 일정으로 대촌천 반딧불이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참가자 대부분이 가족단위인 점을 고려해 반딧불이 관람 외에 다양

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행사기간 매일 오후 7시부터 대촌천 지식교 인근에서 칠석보까지 왕복 2.5km 구간을 걸으며 반딧불이 탐방에 나서게 되며, 코스 중간 장소에서 전체 망원경을 통한 별자리 관측 체험도 할 수 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반딧불이 생태자료 전시와 동영상 시청 코너, 반딧불이 그리기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무등산, 내 도시락을 부탁해"

국립공원공단 21일 부터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



무등보리굴비주먹밥



무등정식

카톡·전화로 예약 주문  
요금은 개당 8000원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1일 부터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 시범 운영과 동시에 도시락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탐방로 입구까지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는 탐방객에게는 도시락 준비 불편을 해소하고, 국립공원에는 필(必)환경 트렌드를 반영해 일회용품 제로화, 지역사회에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준비됐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는 공모를 통해 지역내 기업을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하고 광주지역 중심탐방지원센터와 원효분소, 화순지역 수만리탐방지원센터 총 3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메뉴는 총 2가지로 남도의 한정식을 느껴볼 수 있는 무등정식(잡곡밥, 보리굴비고추장, 제육볶음, 여러 밑반찬과 제철 채소·과일)과 광주대표음식인 떡갈비와 보리굴비를 넣어 만든 무등보리굴비 주먹밥(보리굴비주먹밥, 떡갈비, 밑반찬 제철 채소·과일) 등이다. 예약 주문은 카카오톡에서 '무등산 내 도시락 부탁해'를 검색한 뒤 친구 맺기 후, 채팅을 통해 산행 하루 전 오후 4시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하다. 도시락 요금은 개당 8000원으로 안내 받은 계좌로 입금하면 주문이 완료된다. 한편, 도시락 시범 운영 첫날인 9월 21일 토요일에는 무등산국립공원 장봉재에서 탐방객 대상으로 선착순 20명에게 무료로 무등산국립공원 친환경 도시락을 제공하고 품평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어린이 환경 체험 '무등산 자연지기' 참가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 20일까지

광주환경단체가 자연 소재를 활용하는 놀이와 테마가 있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무등산 자연지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0일 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 '무등산 자연지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연나들이 프로그램은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평촌마을을 중심으로 자연을 체험하고 자연을 지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무등산 자연지기' 프로그램은 9월부

터 11월까지 총 3차례(9월 22일, 10월 20일, 11월 17일)에 걸쳐 진행된다. 무등산과 숲을 주제로 한 9월과 10월에는 호수생태원 답사, 11월에는 재생에너지 교육까지 생태체험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체 관계자는 "지역의 환경문제를 아이들의 눈높이로 풀어보는 현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깨우고 자연과 상생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참가 신청란에서 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2018타경 8300, 경매물건. 투자하실 분

광주지방법원 목표지원 1개(061-270-6691) / 매각기일 : 2019.10.14(月) (10:00)

2018타경 8300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2-12의 2필지	
물건종별	원야	감정가	1,712,816,000원
토지면적	19835㎡ (6000.088평)	최저가	(70%) 1,198,971,000원
건물면적		보통금	(10%) 119,900,000원
매각물건	토지 매각	소유자	유한회사리치산업 외 3명
개시결정	2018-11-19	채무자	유한회사리치산업 외 3명
사건명	임의경매	채권자	김현성외1
관련사건	2019타경3593(중복), 2019타경3609(중복), 2019타경3616(중복)		

  

목적	지번	용도/구조/면적/토지이용계획	㎡당 단가 (공시지가)	감정가	비고	
토지	1	월암리 62-12	준보전산지, 하수처리구역,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7376㎡ (2231.24평) 109,000원 (12,600원)	803,984,000원	·현황 '목전'
	2	월암리 62-15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2189㎡ (662.173평) 68,000원 (10,700원)	148,852,000원	·현황 '목전'
	3	월암리 62-16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10270㎡ (3106.675평) 74,000원 (7,640원)	759,980,000원	·현황 '목전'
합계		면적소계 19835㎡ (6000.088평)	소계	1,712,816,000원	토지 매각	



문의.010-6834-7400